

마크로젠, 매출 108억원에 순손실 10억원

마크로젠은 해외 유전자 분석서비스 등의 사업호조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21% 증가한 10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8월16일 발표했다.

2005회계연도 순손실액은 9억7000만원으로 2004회계연도의 48억3000만원에 비해 80% 감소했다.

마크로젠은 영업실적 개선의 주원인으로 해외 유전자 분석서비스 등 해외매출 비중이 총 매출액의 41%로 40% 증가하고 생산 및 분석 시스템의 효율화와 사옥 이전 등을 통해 매출 원가율과 운영비를 낮췄다는 점을 꼽았다.

이병화 마크로젠 재무담당이사는 “환율하락의 영향 및 예상외의 영업외적 변수로 사업연도 초에 공시한 연간목표와 다소 차이가 발생했으나 4/4분기만으로 볼 때는 흑자전환으로 3/4분기까지의 누적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”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08/18>